

제 1 교시 국 어

1. 다음 중 '준수'의 말하기의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준수: 야! 너 색연필 있지? 줘 봐!
 민수: 어찌지? 미안하지만 지금은 나도 써야 해.
 준수: 내가 먼저 쓸 거야! 바로 줄 건데 뭘 그러냐? 색연필 빌려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 ① 상대방의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
- ② 상대방에게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관용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 다음 중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희: 축제를 앞두고 우리 춤 동아리에서 리허설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축제 때까지 무대가 있는 강당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될까?
 민수: 그건 어렵겠어. 우리 뮤지컬 동아리도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전체 동작이 서로 맞지 않아서 강당에서 연습을 더 해야 해.
 은희: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 춤 동작은 우리가 도와줄 테니 이번 주만이라도 강당을 [A] 우리가 쓰도록 해 주면 좋겠어.
 민수: 그래, 괜찮네. 이번 주는 너희가 쓰고 다음 주는 우리가 쓸게.

- 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며 요구 사항을 전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3. 다음 규정에 따라 발음하지 않는 것은?

표준 발음법

【제19항】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 ① 강릉 ② 담력 ③ 송년 ④ 향로

4. 다음의 높임법을 활용한 문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 ① 아버지께서는 늘 음악을 들으신다.
- ② 어머니께서는 지금 집에서 주무신다.
- ③ 선배는 선생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어제 죽을 드시고 계셨다.

5. 다음 중 끊어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孔·공자·지·曾·중·자·즈·드·려·닐·리·굴·으·샤·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술·훈·父·부·母·모·씨
 받·즈·온 ㉣·거·시·라 敢·감·히·혈·위·상·하·오·디아·니·흠·이
 :·효·도·이·비·르·소·미·오·몸·을·세·위·道·도·를·行·행·하·야
 일·:·흠·을·後·후·世·세·예·베·퍼·며·父·부·母·모·를·:·현·더·케
 :·흠·이·:·효·도·이·만·춤·이·니·라

- 『소학언해』 (1587) -

- ① ㉠ ② ㉡ ③ ㉢ ④ ㉣

6.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집에서 보약을 다리다.
- ② 가난으로 배를 주리다.
- ③ 그늘에서 땀을 식히다.
- ④ 아들에게 학비를 부치다.

7.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만든 광고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고운 말을 사용하자.'는 주제를 드러낼 것
- 비유법, 대구법을 모두 활용할 것

- ① 지금 바로 말하세요. 안 하면 모릅니다.
- ② 봄날처럼 따뜻한 말씨, 보석처럼 빛나는 세상!
- ③ 마음을 멍들게 하는 상처의 말은, 이제 그만!
- ④ 대화는 관계의 시작! 말로 마음의 문을 여실 거죠?

8. ㉠~㉣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지는 바람이 잘 통하고 습도 조절이 잘되는 종이라서 창호지로도 많이 쓰인다. ㉠ 창문이 닫아도 한지는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를 잘 흡수해서 습도 조절 역할까지 한다. ㉡ 그러나 한지에 비해 양지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습기를 잘 흡수하지 못한다. ㉢ 최근 물가 상승으로 한지의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한지가 살아 숨 쉬는 ㉣ 종이라도 양지는 뻣뻣하게 굳어 있는 종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 잘못된 조사를 사용했으므로 '창문을'로 바꾼다.
- ② ㉡: 잘못된 접속어를 사용했으므로 '그러므로'로 바꾼다.
- ③ ㉢: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 문맥을 고려하여 '종이라면'으로 바꾼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9.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고 가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니다’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다.
- ② 2연에서 우물 속 풍경을 보며 비정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 ③ 4연에서 화자는 ‘사나이’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④ 5연에서 미움의 감정이 그리움으로 변화하고 있다.

11. 다음과 관련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화상’은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시인의 이상적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치열한 자아 성찰의 산물인 부끄러움과 암울한 시대에 대한 극복 의지가 담겨 있다.

- ① 이상적 가치를 이미 실현했기 때문에
- ②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 ③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 ④ 삶의 고통을 극복한 자신에게 당당함을 느끼기 때문에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원미동에 터를 잡고 사는 강 노인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땅에 밭농사를 지으며 그 땅을 팔지 않으려 하고 있다.

서울 것들이란. 강 노인은 끽끔거리다 토막 난 옥설을 내뺐어 놓았다. 강 노인이 팽이를 내던지고 밭 끄트머리로 걸어가는 사이 언제 나왔는지 부동산의 박 씨가 알은체를 하였다. 자그마한 체구에 검은 테 안경을 쓰고, 머리는 기름 발라 착 달라붙게 빗어 넘긴 박 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강 노인으로서 괴롭기 짝이 없었다. 얼굴만 마주했다 하면 땅을 팔아 보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회유를 거듭하더니 지난

겨울부터는 임자가 나섰다고 숫제 집까지 찾아와서 온갖 감언이설을 다 늘어놓는 박 씨였다.

<중략>

“영감님, 유 사장이 저 심곡동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니나 봅디다. ㉠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박 씨가 짐짓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는데 뒤따라 나온 동업자 고흥택이 뒷말을 거든다.

“참말로 이 양반이 지난겨울부터 무진 애를 썼구만요. 우리사 셋방이나 얻어 주고 소개료 받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라우. 그람시도 그리 애를 쓴 것이야 다 한동네 사는 정리로다가 그런 것이지요.”

강 노인은 가타부타 말이 없고 이번엔 박 씨가 나섰다.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름마다 똥 냄새 풍겨 주는 밭으로 두고 있느니 평당 백만 원 이상으로 팔아넘기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이제는 참말 이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 모르십니까. 팔팔 올림픽 전에 북에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 쌓으니 이삼천짜리 집들도 매기¹⁾가 뚝 끊겼다 이 말입니다.”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이만한 가격으로 임자 나섰을 때 후딱 팔아 치우시요. 영감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인자 더 이상 오르는 어렵다는데 왜 못 알아들으실까잉. 경국이 할머니도 팔아 치우자고 저 야단인디…….”

고흥택은 이제 강 노인 마누라까지 쳐들고 나선다. 강 노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그 등에 대고 박 씨가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던졌다.

“아직도 유 사장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께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 보기로 하고, 일단 결정해 뿌리시요!”

- 양귀자, 「마지막 땅」 -

1) 상품을 사려는 분위기. 또는 살 사람들의 인기.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화해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비현실적인 배경을 제시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에 대한 강 노인의 못마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1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 사장은 강 노인의 땅을 마음에 두고 있다.
- ② 고흥택은 받지 못한 소개료 때문에 생활고를 겪고 있다.
- ③ 신문 방송의 영향으로 집을 사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 ④ 박 씨는 강 노인에게 땅을 팔라고 말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14. ㉠에 드러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지난 잘못을 들추며 비난하고 있다.
- ② 땅값이 앞으로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 협박하고 있다.
- ③ 동네 발전에 애쓴 것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침묵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질책하고 있다.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사(生死) 길은
 예 있스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15. 다음을 참고하여 윗글을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작품은 10구체 향가이다. 1~4행, 5~8행, 9~10행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마지막 부분이 낙구이다.

- ①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되고 있군.
- ② 세 부분은 각각 연으로 구분되어 있군.
- ③ 10구체 향가는 후렴구로 마무리되고 있군.
- ④ 세 부분의 첫 어절은 각각 3음절로 시작되고 있군.

16. ㉠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재회를 염원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업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이별한 대상을 원망하고 있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반도 떼어 입에 넣어 드리고 김쌈도 싸서 수저에 놓으며,
 “진지를 많이 잡수셔요.”
 심 봉사는 철도 모르고,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뉘 집 제사 지냈느냐?”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간은 천륜지간(天倫之間)이라 꿈에 미리 보여 주는 바가 있었다.
 “아가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더구나. 수레라 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 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란가 보다.”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하고 진짓상을 물려 내고 담배 태워 드린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 그런 뒤에 심청이 사당에 하직하려고 들어갈 제,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다.

“못난 여손(女孫) 심청이는 아버지 눈 뜨기를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 가오매, 조상 제사를 끊게 되오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하니, 심 봉사가 깜짝 놀라,

“아가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하거라.”

심청이 여쭙기를,

“제가 못난 딸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삼백 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 보셔요.”

심 봉사가 이 말을 듣고,

“참말이냐, 참말이냐? 애고 애고, 이게 웬 말이고? 못 가리라, 못 가리라. 네가 날더러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나? 너의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이레 안에 죽은 뒤에,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집 저집

[A]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 가면서 동냥짓 얻어 먹여 이만치 자랐는데, 내 아무리 눈 어두우나 너를 눈으로 알고, 너의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라 마라, 못 하리라.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하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 너를 살 터에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리?”

- 작자 미상, 완판본 『심청전』 -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심청은 자신이 떠나야 하는 까닭을 아버지에게 밝혔다.
- ② 심청은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하기 위해 사당으로 들어갔다.
- ③ 심 봉사는 자신을 위해 제물이 되려는 심청의 결정을 만류하고 있다.
- ④ 심청은 자신이 떠난 후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18. 꿈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청의 영웅적 능력을 드러낸다.
- ② 심청의 앞날에 일어날 일을 암시한다.
- ③ 심 봉사와 심청의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된다.
- ④ 심청이 겪었던 과거의 위기 상황을 보여 준다.

19.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삶의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③ 해학적 표현을 통해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하고 있다.
- ④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인물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글을 잘 읽으려면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읽기의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음독(音讀)과 묵독(默讀)으로 나뉜다. 음독은 글을 소리 내어 읽는 방법이며, 묵독은 글을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읽는 방법이다. 음독은 근대 이전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읽기 방법으로, 요즘에는 개인이 혼자 글을 읽을 때 대체로 묵독을 사용한다.

㉠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뜻을 파악하거나 두 사람이상이 함께 읽을 때는 음독이 사용되기도 한다.

둘째, 글을 읽는 속도에 따라 속독(速讀)과 지독(遲讀)으로 나뉜다. 속독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빠르게 읽는 방법이며, 지독은 뜻을 새겨 가며 글을 천천히 읽는 방법이다. 속독은 주로 가벼운 내용이 담긴 글을 읽거나, 글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여 대강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반면 깊이 있는 내용이나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읽을 때는 대체로 지독이 사용된다. 이때 전문 서적을 읽을 때처럼 글의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며 읽는 것을 정독(精讀)이라고 하고, 문학 작품이나 고전을 읽을 때처럼 내용과 형식, 표현 등을 차를 우려내듯 여유롭게 음미하며 읽는 것을 미독(味讀)이라고 한다.

셋째, 글을 읽는 범위에 따라 통독(通讀)과 발췌독(拔萃讀)으로 나뉜다. 통독은 글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읽는 방법이며, 발췌독은 글에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는 방법이다. 통독은 주로 글 전체의 내용이나 줄거리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발췌독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특정 정보를 찾을 때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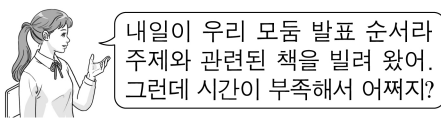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읽기 방법을 기준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읽기 방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읽기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읽기 방법을 절충하여 새로운 읽기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21.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러나 ② 따라서 ③ 예컨대 ④ 왜냐하면

22. ㉡와 ㉢에 들어갈 읽기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시간이 없으면 대강의 내용을 먼저 빠르게 보는 (㉡)이나, 목차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는 (㉢)을 활용해 봐.



- | | | |
|---|----|-----|
| | ㉡ | ㉢ |
| ① | 속독 | 통독 |
| ② | 속독 | 발췌독 |
| ③ | 지독 | 통독 |
| ④ | 지독 | 발췌독 |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할까? 신경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의 논문이 ㉠ 게재됐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자들은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들을 두 조로 나누어 같은 조끼리만 농구공을 주고받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연구자들은 이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만 세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실제 이 영상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학생이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들의 절반은 이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 도대체 이들은 왜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 이것은 ‘무주의 맹시’ 때문이다. 이는 시각이 ㉢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간은 눈을 통해 빛을 감지하고 사물을 보지만 눈 자체로 세상을 ㉣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망막의 시각 세포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고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뇌의 시각 피질로 들어올 때 세상을 본다고 느끼는 것이다. 시각 피질은 약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영역으로,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지를 구분하는 영역, 형태를 구성하는 영역, 색을 담당하는 영역, 운동을 ㉤ 감지하는 영역 등 다양한 영역이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예를 들어 시각 피질의 영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며, 운동을 감지하는 영역이 손상되면 질주하는 자동차도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뇌의 많은 영역이 시각이라는 감각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보이는 그대로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뇌는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의 과정을 거쳐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 이은희, 「고릴라를 못 본 이유」 -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사례를 통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ㄴ. 질문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ㄷ.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통념을 보여 주고 있다.
 ㄹ. 서로 다른 실험 결과를 대비하여 가설을 증명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2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망막의 시각 세포는 흰색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 ② 시신경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 ③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 ④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처리하기 어려운 뇌의 특성 때문에

2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
- ②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 따위를 잃어버림.
- ③ ㉢: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 ④ ㉤: 느끼어 앎.